

光日春秋



김용택 시인

아침 달이 서산에 걸렸다. 예쁘다. 아직 노란빛이 남았다. 아침 바람 부는 날이다. 양식이 산책 못 간다고 문자가 왔다. 홀로 걷는 들만이 텅 비었다. 들이 멀리 한가롭다.

아내가 나들이 가면서 빨래 다 되면 널라고 한다. 바람이 거칠어져서 거실에 빨래를 널었다. 책을 보다가 잠이 쏟아져서, 낮잠을 깊게 잤다. 어제 주워다 삶은 알밤을 다잡쥬처럼 앉아 까먹었다. 배불렀다.

자전거 타고 알밤 주우러 갔다. 회관 마당에 짐손 어머니가 왔다. 짐손 어머니가 삶은 감자를 비닐 주머니 속에서 꺼내 준다. 따뜻하다. 감자가 든 비닐 주머니 속에 감이 서려 있다. 하나 남은 것도 가져가라고 했다. 두고 갔다. 가을바람과 가을 햇살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자연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그대로 한다. 널어놓고 깨 위를 돌아다니며 두 발로 고랑과 이랑을 만든다. 추상화 같다. 농사를 짓는

마을은 염려 없다

사람들은 삶이 예술이다.

바람이 세계 불면 밤나무 가지가 흔들려 알밤이 많이 빠진다. 생각대로 알밤이 빠져 있다. 밤나무의 생산은 아름답고 나의 수확은 신난다. 저만큼 밤송이가 알밤을 물고 떨어져 있다. 두 발로 밤송이를 열고 알밤을 꺼낸다. 서너 개 주우면 행복한 한주먹이 된다. 밤을 다 줌고 밤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오지 않아도 되겠다.

짐손 어머니가 아직도 콩 타작하고 있다. 나무막대기를 양손에 들고 콩대를 두 톱 두 톱 때린다. 콩들이 콩콩 튀어나와 툇툇 튀다가 또르르 또르르 굴러 간다. 콩을 쫓아다녔다. 금방 밤송이가 된다. 일하는 중간에 울수 없어 콩 타작 다 할 때까지 콩을 따라다니며 주웠다. 콩 한 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마을 사람들이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는다고 했다.

앞산에는 팽나무 잎이 노랗게 물든다. 뒷산 그들이 마을을 덮어 올 때 아내가 왔다. 뒤 언덕에서 호박잎과 새순을 따다. 호박잎은 단 한 번의 서리로 잎들이 시들어 버린다. 서리 오기 전에 호박잎과 호박 줄기 끝 새순을 따서 씹을 새 먹어야 한다. 무성한 넝쿨 속에 숨은 호박도 찾아 따다.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네! 이 무슨 일인가! 늦북 타졌네! 호박 두 포기를 심었는데, 많이도 열린다. 부침개 부쳐 먹기 좋은 애호박을 골라 회관에 가져다드렸다. "아니, 김 선생네는 왜 그렇게 호박이 잘 열리는 데야?" "내년에 우리 집 호박도 좀 심어주지." 좋아

한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한 가족이 잔디 마당에서 뛰어난다. 아이들에게 크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나이를 물었다 여섯 살, 네 살이다. 어머니 되시는 분이 내려다 후손이세요. 한다. 김용택 후손이냐는 말이다. 내가 본인이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일꾼이세요? 하기도 한다. 경기도에서 왔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어제 새로 나온 그림책을 한 권 줬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인터넷에 들어가 시집 리뷰를 찾아 읽었다. 윌트 휘트먼의 이런 시 구절을 보았다. "당신의 영혼을 모독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멀리하라" 날이 어두워진다. 창밖을 보았다. 밥 짓는 아내의 딸그락 소리가 나의 하루를 고른다.

사람 사는 일에 이일 저일 없으리 없다. 사람이 살면서 겪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견디며 이겨내고 무슨 수를 찾아하루하루 살아간다. 사람들의 하루가 다 장하다.

나는 마을의 일상을 잘 따른다. 열다섯 가구가 사는 마을이라고 나라의 일과 무관할 리 없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나라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평일을 평상시처럼 산다.

여든아홉 짐손 어머니는 이웃 마을에서 우리 마을로 시집와서 70여 년을 사신다. 나는 '그 일'이 그렇게 좋다. 오늘은 2024년 10월 26일이다.

社說

‘트럼프 리스크’...불확실성 철저한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다.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제(현지시간) 대통령 선거 승리 선언을 하며 ‘몸에 힘이 남아 있는 한 강력하고 변역하는 미국을 만들 때까지 쉬지 않겠다. 미국을 가장 위대한 국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국(미국) 중심의 정책을 최우선하겠다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 대외 정책은 급변할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은 물론 세계 국가별 이해 관계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지난 '1기 정권' 보다 월등히 강력한 입지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선거인단뿐만 아니라 득표율에서도 예상을 깨고 격차를 보였으며, 상원 선거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화당내 입지가 공고해진 상태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동맹국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비해 동맹국들의 기여도는 아주 적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미가 이미 합의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트럼프는 현재보다 9배 이상 많은 100억 달러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전기차용 배터리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했으며, 한국-중국-독일을 겨냥해 '다른 나라의 일자리와 공장을 빼앗아 오겠다'고도 했다. 나아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양국 모두와 밀접한 우리로서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트럼프가 북한과 직거래를 통해 단일 우리의 의사와 상반된 협상을 체결할 경우 한반도 질서는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당선인과 약 12분간 당선 축하를 겸한 통화를 했다고 한다. 정부는 신속히 양 정상 간 만남을 성사시켜야 한다. 또 트럼프가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차기 정권과의 소통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광주 모빌리티·인공지능 성장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가 빛그린국가산단과 광주연구개발특구첨단3지구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빛그린산단은 68만㎡, 첨단3 지구는 52만㎡로 두 지역을 합하면 36만5000여 평에 달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와 세제 및 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이다. 쉽게 말해 특구에 동지를 튼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광주시는 특구 지정에 계기로 미래 성장산업인 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빛그린산단을 모빌리티 특구로 지정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이차전지 등 미래차 부품산업으로 키우고, 첨단3 지구는 인공지능 융복합 서비스를 실증하고 구현하는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모빌리티는 기아차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생산시설을 갖춘 자동차 도시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다. 인공지능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다.

이런 점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광주의 산업 생태계를 바꿔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를 이끌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지정됐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토대만 마련한 것이지 내실을 기하지 않으면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부터 특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마스터플랜을 꼼꼼하게 짜고 기업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광주시를 비롯한 지역 경제에 남겨진 과제다.

無等鼓

예상했던 그대였다. KIA 타이거즈의 12번째 우승이 확정된 뒤 가장 많은 눈물을 쏟아낸 선수는 내아수 박찬호와 포수 김태군이였다. 동료들의 표정을 빌리자면 박찬호와 김태군은 오열했다. 일반적인 보통의 선수들은 아니다. 땀한 입서 비스성의 멘트보다는 자신의 소신과 야구 철학을 솔직하게 말하는, '듣고 싶어 하는' 이 아닌 '하고 싶은' 또는 '해야 하는' 말을 하는 선수들이다.

우승이 확정된 뒤 가장 많은 눈물을 쏟아낸 선수, 사연과 인연

많은 박찬호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범호 감독

는 "찬호의 플레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팀을 위한 마음과 열정은 큰 그릇의 선수라고 이야기한 이 감독은 "찬호 많이 사랑해 주세유"라는 당부의 말도 남겼다. 많은 지도자가 바라는 반듯한 플레이는 아니지만, 여전히 고개를 가웃하게 하는 들뜬 모습도 보여주지만 이 감독은 박찬호라는 선수 자체를 인정하고 그의 능력을 존중해왔다. 그리고 누구보다 강한 승리 열망과 팀에 대한 애정은 한국시리즈가 '인생의 꿈'이었던 박찬호를 5차전 MVP로 만들었다.

주입식 교육의 폐해로 정해놓은 '정답'에 익숙한, 개성 있는 개인보다는 안정적인 체계를 강조

프로의 눈물

하는 사회 분위기 속 이들의 솔직함은 불편함일 수 있다.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악플을 쏟아내며 삶의 위안을 얻는 이들은 그냥 젊은 존재를 찾기도 한다.

익숙해지지 않는다. 그라운드에서는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달리는 그들. 동료와 가족의 사랑을 받는 보통의 사람이다. 우승이 간절했고, 프로답게 오로지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었던 두 새나이의 사연 많은 눈물이었다. / 김여울 채육부 차장 wool@

종교칼럼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도군로 1826에는 봉황교회라는 교회가 있다. 이 교회는 1902년에 부해리(Henry Moro Bruen 1874-1959) 선교사와 구미 구평교회에 출석하던 김점원 등 몇 명이 설립한 곳이다. 그 교회에는 설립 후 몇몇 교역자들이 몇 년씩 목회를 하였는데 당시 평양신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돌아온 소무열이라는 전도사가 목회를 한 적이 있었다. 그 전도사가 바로 나의 외할아버지이다. 바로 후임 목사로 부임한 분이 소도열 목사인데 평양신학교에서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신 분이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 나의 작은 외조부가 되신다.

그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재미난 것을 보았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향이나 동리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다는데 것이다. 봉황교회는 설립 초기 주변지역에 여러 개의 교회를 분립 개척했다. 1903년에는 김인옥과 이성준이 의성군에 쌍계교회를 개척했고, 1904년에는 최만화 등이 군위

교회가 교회를 낳는 부흥의 역사

군 효령면에 내리교회를 설립했으며, 1906년에는 선산군 도개면(현 의성군 구전면)에 청산교회를 분립했다. 이때 세워진 청산교회가 바로 나의 외증조부 소명복 장로님이 세운 교회이다.

증조부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다니시던 교회는 대사교회인데 이 교회가 바로 봉황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쌍계교회의 교인 이어경이라는 분이 열심히 전도하여 1909년에 세운 교회이다. 안평면 소재지에서 남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대사교회로 가다 보면 대사 마을이 보이는 곳에 1996년 4월에 건립한 3·1만세운동 기념탑이 있다. 1919년 3월 15일부터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는데 증조할아버지가 참가하여 나의 아버지는 훗날 독립유공자 삼세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 재미난 것은 대사교회를 다니시던 아버지와 청산교회를 다니시던 어머니가 중매로 만나 결혼을 하고 나와 나의 형제자매들이 태어난 것이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1935년생으로 동갑이시이다. 부모님의 신앙은 이러한 토양에서 자라게 되었고 그렇게 평생을 목회를 하며 전국에 교회를 세우시고 건축을 하셨다. 평생을 타지에서 지내시던 은퇴를 하고 대사교회가 있는 근처에 거처를 마련하고 이사를 하셨다. 이제는 많은 세월이 흘러 기억조차 흐릿하시고 말씀조차 하시기 힘들어 하시며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신다. 이 요양원 자리는 할아버지께서 그 동리에 초등학교가 세워질 때 땅을 기증하였던 곳이고 오래전에 아이들이 없어 폐교가 되었고 이제는 요양원이 들어섰는데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되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고'고 기록되어 있다. 나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 없었던, 배낭에 두 벌 옷이 없는 아버지를 무척 원망했다.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 어떤 뒷배가 되어주지 못하시는 아버지를 그리 존경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에 목회의 연수가 늘어나고 현실의 장벽에 부딪힐 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었다.

어릴 적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없어야 주시지 않으면 안 주신다." 주렁주렁 달린 자식들을 키우며 양식이 떨어진다든 것이 얼마나 걱정되고 두려웠겠는가.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지행할 수 있었고 또 한 그러한 경험들이 더 큰 믿음을 만들어 내었다.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 목회자의 삶이나 교회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과 희생을 되새겨보며 교회들은 부족하여서 더 채워야 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이러한 신앙 이야기말로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해 보인다.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이 당연했고 그렇게 한국 교회는 성장했고 부흥했던 것이었다.

기고

성평등 세상을 위한 향해 '제15회 광주여성영화제'



김채희 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여성의 눈으로 보는 세상, 모두를 위한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5년간 광주시민들을 만나온 광주여성영화제는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담론을 제시하며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존 영화 산업에서 주류가 아닌,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았던 여성 감독들의 목소리와 시각을 중심으로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안한다.

6일 개막한 15회 광주여성영화제가 오는 10일까지 CGV 금남 등에서 열린다. 올해 영화제의 주제는 '카운트 업'이다. 냉소와 불안, 막막함에 주저앉지 않기 위해,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차근차근 만들어 온 변화를 하나씩 세어보며 변화의 합을 만들어 가자는 희망과 염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개막작인 양주연 감독의 '양양'은 40년 전 자살한 고모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감독이 고모의 흔적을 추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가족의 비밀이 된 고모의 이야기를 되짚으면서 그동안 역사 속에서 지워져 온 여성들을 기억하며, 고모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가는 내용이이다. 잃어버린 여성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양

양'을 시작으로 50편의 영화들은 그동안 들 수 없었던 또는 들리지 않았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새롭게 신설한 '플래시 아시아' 섹션에서는 아시아 여성감독의 소수자적 시선을 통해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위기를 예리하게 포착하며 절망을 향해가기도 하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헤아리고 희망의 순간을 조직하며 함께 가자고 제안한다. 영화 '바로 지금 여가'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사는 가장 취약 계층의 여성들과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특별섹션 기억과 기록 : 되살아나는 목소리'는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 잊혀지지 않아야 할 분들을 기억하고, 역사와 정의를 기록하는 여성들을 조명하는 섹션이다. 오래전 촬영한 필름들을 디지털로 복원하여 조선인 피해자들의 증언을 다시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와 80년 5월, 아들을 잃고 유가족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던 최근기에 돌아가신 고 박순금 님을 기억하는 '순금의 정원', 그리고 제주 4·3 피해자들의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여성문제를 본격 조명하는 '목소리들'이 상영된다.

폐막작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에서는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장애인도 그저 시민으로서 사회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그들의 외침은 놀라운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지역영화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없어진 이때에 여전

히 지역에서도 영화를 만들고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여성영화인들이 있다는 것을 더욱 드러내고 싶었다. 제주, 부산, 대구, 전북 그리고 광주에서 영화를 만드는 여성감독들을 '지역영화 교류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메이드인 광주' 섹션에서는 광주에서 영화를 만드는 청소년, 청년들을 만날 수 있다. 배리어프리 버전의 광주영화 '내 이름'도 만날 수 있다.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대부분의 영화 상영 후 감독과 관련 전문가 패널들을 초청하여 영화의 의미와 메시지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두 개의 '포커스 토크'를 통해서 지금, 가장 큰 여성이슈 중 하나인 디바이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역사와 정의를 기록하는 여성영화인들이 조명한다.

매년 11월, 금남로가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물드는 이때, 전국에서 많은 영화인들과 관객들이 광주를 찾는다. 광주여성영화제는 여성 영화의 창작과 상영을 위한 중요한 무대이자 광주를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는 이제 단순히 영화를 소비하는 지역을 넘어, 여성 영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그 변화는 다음 아닌 영화 속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영화인들과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관객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축제에 함께 하며, 영화라는 예술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의 합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濤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자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 문 화 부 220-0624 | (FAX 222-8005) |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4 | 예 향 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경 제 부 220-0648 | 여 론 메 체 부 220-0661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 사 진 부 220-0693 | 디 자 인 실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1
제 2 사 회 부 220-0680 | 디 지 털 부 220-0697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